

울산남부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결과

An Operating Outcome of Bibliotherapy Programs in Ulsan NamBu Library

김 순 화(Soon-Hwa Kim)*

< 목 차 >

- | | |
|--------------------------|------------------------|
| I. 들어가며 | 3. 주변의 반응과 관심 |
| II.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의 긍정적 효과 | III.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 |
| 1. 진행자(사서) 측면 | IV. 나오며 |
| 2. 참여자 측면 | |

초 록

이 연구는 울산남부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 도서관은 사서가 중심이 되어 어린이와 주부를 대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하여 앞으로의 진행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진행자와 참여자, 그리고 주변의 반응과 관심을 살펴보았으며, 연구자의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주제어: 공공도서관, 사서, 독서치료

ABSTRACT

This study is analyzed an operating outcome of Bibliotherapy programs in Ulsan NamBu Library. This library is running the programs by the librarians as leaders for the children and housewives. In the process of the running them,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as well as positive effects which need to be reviewed and helped for the future process. For all, the reactions and interests of the program directors, the participants and other people in the area were observed, and the problems in the light of the experience and observations of the researcher on the study were surveyed.

Key Words: Public Library, Librarian, Bibliotherapy

* 울산남부도서관 사서(soowa@mail.ulsu.ac.kr)

• 접수일: 2005년 2월 15일 • 최종심사일: 2005년 2월 20일 • 최종심사일: 2005년 3월 4일

I. 들어가며

2004년에 접어들면서 울산남부도서관에서는 독서치료 연구모임¹⁾에 참여했던 사서들이 주체가 되어 특정 과목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겨울·여름독서교실과 평생교육강좌에 어린이 및 성인(주부) 대상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설²⁾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행자였던 사서들은 1년 반정도 독서치료 연구모임에 참여했거나 인사이동으로 혹은 담당 사무의 재분장으로 모임의 중간에 동참하기도 했다.

프로그램 참여자 중 어린이는 독서치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기 보다 독서교실의 경우는 학교장의 추천으로, 그리고 평생교육강좌의 경우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신청한 경우가 많았다. 성인(주부) 독서치료는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자는 생각에서 등록을 했다. 그러나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나면 한 두 명 정도의 참여자들은 '내가 생각했던 수업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자료를 통해 독서치료의 수업 내용과 과정을 미리 알렸음에도, 그들은 강의를 듣는 것으로 알았으며 토론식이라 부담스럽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독서치료 수업에서는 우선 참여자 자신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상처를 발견하고, 그 상처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발견하고 나면 스스로 치유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게 된다. 그러나 처음에는 상처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다소 조심을 한다. 그것은 왜 상처를 이야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 부족과 마음의 병을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마음의 병은 병이 아니라는 시각은 '마음만 강하게 먹어라'거나 '신경을 쓰지 말라'면서 의지의 문제로만 돌릴 뿐, 병 자체를 부정한다. 여기에는 병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구가 숨어 있다.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정신적인 고통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은 걸리지 않고 특수한 사람만 걸리는 병이라는 방어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³⁾

그러나 누군가가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서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만나거나, 개인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례를 책에서 접하면서 참여자 자신의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은 정신치료의 방법과 일정 부분 유사점이 있다.

-
- 1) 독서치료 연구모임의 결성과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김순화,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연구 : 울산남부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도서관, 제59권, 제3호(2004, 가을), pp.71-100 참조.
 - 2)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실제 운영에 관한 내용은, 김순화,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 울산남부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제42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2004, 10), pp.94-131 참조.
 - 3) 최훈동,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정신의학이야기(서울 : 한울, 2001), 프롤로그 p.1.

정신치료는 환자의 고통스런 심리적 문제를 치료자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치료방법으로, 일반 상담과는 다르다. 카운슬링이나 상담은 인생에 대한 조언이나 위로, 격려, 전문 지식을 알려주거나 경험인에게 다른 시각을 배우는 수직적 관계이다. 반면 정신치료는 치료자가 환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환자의 신뢰감을 높인다. 환자가 지지 받고 인정받는 느낌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깨달아가고 교정된 정서 체험을 통해 현실에서 반복되는 행동문제를 시정해나감으로써 왜곡된 인격구조와 대인관계를 수정해 나가는 수평적 관계이다.⁴⁾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울산남부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하여 앞으로의 진행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진행자(사서)와 참여자, 그리고 주변의 반응과 관심을 살펴보았으며, 연구자의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지속성과 관찰기간을 고려하여 독서교실 과정은 연구 대상에서 부득이 제외시켰으며, 12주 과정으로 운영되었던 평생교육강좌 참여자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자료는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채록한 참여자들의 발표 자료와 글, 설문 조사, 사서를 대상으로 수집된 서면 면담, 그리고 연구자의 참여관찰 등이다.

II.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의 긍정적 효과

1. 진행자(사서) 측면

연구자의 개인적인 관찰⁵⁾을 말해 보자면 공공도서관 현장의 사서들은 독서치료를 포함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대하여 다소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았다. 때로는 ‘겁을 내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때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울산남부도서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우선 독서치료 연구모임을 시작하던 초기 4명의 사서들은 각자 맡은 업무 외에 새로운 업무를 추가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을 가졌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간이 해결사였다. 서둘지 말자는 전제 하에, 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발생하면 그 일을 우선으로 했으며, 때로는 도서관 일이 바빠 1~2개월 모임을 가지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하지는 제안에는 모두가 동의를 했다. 요즘은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니가 되네’라는 말을 웃으면서 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에 전적

4) 상계서, p.48.

5) 연구자가 외래교수로 참여하고 있는 2004년 상·하반기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독서요법사 I, II 과정에는 부산, 경남, 울산지역의 공공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5명의 사서가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자가 청강했던 2004년 1학기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독서치료 수업(사서교육전공, 담당 김정근 교수)에도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사서가 참여를 했다. 그리고 울산남부도서관의 독서치료 연구모임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문의 및 주변 사서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읽을 수 있었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6권 제1호)

으로 동감을 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처음 제의를 받았을 때 독서치료가 무엇인지 몰랐으며,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에 소속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쯤 경험해 보고 싶었다. 첫모임에서 독서치료에 대한 논문이나 책을 소개받고 독서치료 경험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책을 읽고 동료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독서치료에 대하여 이해하게 되었다. 그 과정은 나의 지난 삶과 현재 삶을 돌이켜 보게 했다.⁶⁾

모임이 시작될 당시 이동도서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시작멤버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모임이 궁금하기는 했다. 독서치료가란 뭘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지금 저 사람들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간에 참여하면서 느낀 첫 소감은 어! 겨우 이런 거야 하는 것이었다. 뭘 치료한다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다. 이런 느낌은 어쩌면 나 자신이 독서치료를 필요로 할 만큼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독서치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참 의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반응이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첫 느낌은 그랬다. 그리고 그동안 이론적인 수업에 많이 길들여져 있어서 독서치료와 같이 체험적인 수업에 대한 느낌을 언뜻 받아들이기 힘들었다.⁷⁾

다음은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 강의를 잘 해 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하여 염려를 했다. 그 동안 사서들은 독서교실을 비롯하여 아이들을 상대로 실제 수업을 한 사례들이 많다. 그러나 평생교육 강좌의 경우 사서가 강사로 나선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더군다나 강의료를 받기 때문에 책임감이 따르고,⁸⁾ 강의란 강사가 모든 것을 준비하여 참여자들에게 지식을 전달한다 라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사서는 '리더', '진행자', '인도자', 또는 '조정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부산 연산도서관에서 성인(주부) 독서치료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김경숙 사서와 같은 위치를 독서치료 모임의 리더(leader), 진행자(facilitator), 인도자(presider), 또는 조정자(coordinator) 정도로 부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 자신의 위치도 그 정도로 보면 제일 적절할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나나 김경숙 사서의 위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 위치를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거듭 생각해 보아도 나나 김경숙 사서의 위치를 치료사로 보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자꾸만 부담감이 생기고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진정 치료사는 누구인가? '치료사는 책이다.' 이것이 지금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이다.⁹⁾

6) F사서와의 서면 면담, 2004. 10. 20.

7) G사서와의 서면 면담, 2004. 10. 20.

8) "독서교실은 그동안 해 왔던 대로 수업을 하면 되지만, 이 강좌는 강의료를 받으니까 부담이 되요. 강의를 한다면 뭔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아이들에게 줄게 있어야 되잖아요." G사서와의 대화, 2004. 8. 25.

9) 김정근, "김정근의 독서치료 이야기 : 치료사는 누구인가." 출판저널, 통권 제347호(2004, 10), p.129. 김정근

그리고 ‘신성회’를 이끌고 있는 이영애는 “우리가 하는 일은 정신 건강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본인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보살피며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나 단체를 소개하고, 또 가정생활과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책들과 테이프를 소개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안내인’ 내지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¹⁰⁾라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울산남부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사서들은 기존 지식을 전달하는 강사의 입장이라기 보다 참여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치유서를 통해 그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상처를 밖으로 드러내 치유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이를 위해 “사서 스스로 치유서를 읽고 마음의 변화를 체험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¹¹⁾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사서 자신의 내부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참여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통찰하고 치유하려는 노력을 했으며, “기술적인 측면보다 인간의 아픔에 대한 동정심과 봉사하는 마음”¹²⁾을 유지하려 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근 교수는 진행자 자신이 치유의 경험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며, 헨리 나우웬이 말하는 ‘상처입은 치유자’에 대하여 언급한다.

신성회의 대표이자 책읽기를 통한 치유(서울 : 홍성사, 2002)의 저자인 이영애와 같이 자신의 체험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를 ‘상처 입은 치유자(wounded healer)’라고 한다. 이런 배경을 가지면 모임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¹³⁾

위의 글을 통해 참여 사서들은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좀 더 적극적이며 신중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인사이드가 있거나 인사이드에 대비하여 강사진의 구성에 신경을 써야 했으며,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업무 담당을 재편성했다. 이들은 모임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크게 지장을 주지 않았다. 어떤 경우는 울산지역의 다른 도서관으로 발령을 받아 간 뒤 울산남부도서관의 경험을 살려 그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4년 10월 21일(목) 독서치료 연구모임에서는 그 해 12월 달에 발간된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한 자가치유 도서목록’ 제4호에 추가할 목록을 검토했다.

교수는 이 글을 쓰기 이전에도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고심을 했으며, 글로 발표한 적이 있다. “‘독서치료사’라는 표현을 편의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삼간다는 것이다. 그 대신 치료 모임의 ‘진행자’ 또는 ‘인도자presider’ 정도의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사실 독서치료 모임에서 ‘치료사’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 독서행위 자체라고 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과정에서 심리적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자극되어 의식의 밖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독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과 만나 문제와 그 원인을 찾아내게 되고 아픔의 완화와 변화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김정근, “김정근의 독서치료 이야기 : 독서치료 소개하는 책과 모임들,” 출판저널, 통권 제342호(2004, 5), p.149.

10) 이영애, 책읽기를 통한 치유(서울 : 홍성사, 2002), p.8.

11) K사서의 발언, ‘연구자의 독서치료 연구모임 일지 중에서’, 2003. 2. 6.

12) 김정근, 전개글, 출판저널, 통권 제342호(2004, 5), p.148.

13) 상계서.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6권 제1호)

이 과정에서 어느 사서가 이 업무를 인계 받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울산남부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사서들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독서교육을 생각하고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해답을 찾는 참여자들과 씨름하면서,¹⁴⁾ 그리고 심리적인 부담과 자심감의 부족으로 내가 수업을 맡아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차츰 횡수가 거듭되면서 나름대로 독서치료에 대한 개념과 방법을 터득하기에 이르렀다.¹⁵⁾ 처음부터 독서치료에 대한 개념과 방법을 완전히 정립한 뒤 수업을 맡았다기보다 오히려 수업을 진행하면서 방법을 터득하고, 효과에 대한 확신을 얻어 가고 있다. 그리고 서서히 독서치료 진행자로서, 그리고 공공도서관 사서로서 일의 보람을 찾기도 한다.

독서치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고 거기에 비추어 그들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점과 내성적인 아이들이 자기 혼자만의 고민인줄 알고 지내다가 다른 아이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 놓여 할 때 보람이 있었다.¹⁶⁾

아이들이 느끼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나를 대할 때 도서관에 근무하는 선생님이로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믿고 따라 준다는 느낌이 들어 좋았다.¹⁷⁾

그러면서 앞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험이 축적되고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면 도서관 사서로서 이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¹⁸⁾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드러내기도 했다. 아울러 현재 자신의 모습을 들려주기도 했다.

처음에는 생소하고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나 조금씩 모임에 참여하고 독서치료 관련 내용을 접하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예전부터 느낀 것이지만 독서란 단순히 책을 읽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내 생활에 반영하여 변화된 나를 경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세상과 연결되고 도움이 될 때 그것이 곧 진정한 독서라 생각된다. 이러한 일을 '독서치료'를 통해 학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일이 곧 도서관과 사서가 짊어줘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한다. 평소 근무할 때는 이러한 것에 대해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독서치료 과정에 참여한 후 이 부분에 대한 내 생각이 더욱더 굳어지고 현실화 된 것 같다.¹⁹⁾

14) W사서와의 서면 면담, 2004. 10. 20.

15) F사서와의 서면 면담, 2004. 10. 20.

16) F사서와의 서면 면담, 2004. 10. 20.

17) W사서와의 서면 면담, 2004. 10. 20.

18) G사서와의 서면 면담, 2004. 10. 20.

19) G사서와의 서면 면담, 2004. 10. 20.

2. 참여자 측면

가. 어린이 독서치료

울산남부도서관 평생교육팀에서는 강좌가 끝나는 날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그 자료²⁰⁾를 보면 2004년 상반기 초등학교 5~6학년 20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진행된 ‘어린이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남학생 5명과 여학생 12명, 즉 17명이 마지막까지 수업에 참여를 했다. 이들이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부모님의 권유와 신청에 의해서’라고 답변한 학생이 13명이었으며, 4명은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3명은 ‘학교 공부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목적과 여유시간활용, 기타 개인적인 이유’라고 질문에 응했다.²¹⁾ 이들은 프로그램에 만족한다²²⁾고 했으며, 17명 전원이 이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답변을 했다. 처음에는 이론적인 수업을 기대하고 온 것 같았으나 수업이 진행되고, 독서치료의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면서 참여의식이 높아졌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이어갔다.²³⁾

어린이 독서치료는 ‘아이들의 마음은 과연 편안한가’라는 의문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아이들이 웃고 뛰어 노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리라 생각한다. ‘너희들이 무슨 걱정이 있어? 그냥 놀기만 하면 되는걸’이라며 그들의 삶을 부러워한다.

어른들은 보통 ‘애들 팔자가 상팔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복잡하고 바쁜 생활에 비해서 아이들의 생활은 아주 편해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바라는 만큼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아요.²⁴⁾

아이들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는 친구 사이에서 나름대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겪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마음의 상처가 자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부재로 비록 그러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마음 속에 묻어 두게 된다.

“모욕감과 실패감에서 빠져나와 자신이 행복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게 되기까지 유년기는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른다. 또한 유년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기도 하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아이는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자신과 타인들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²⁵⁾ 그러나 아

20) 울산남부도서관 평생교육팀, 평생교육프로그램 설문조사 : 어린이 독서치료(2004. 5).

21)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에 대한 질문에 3명은 복수의 대답을 했다.

22) 매우 만족이 9명, 만족이 8명이었다.

23) G사서와의 서면 면담, 2004. 10. 20.

24) 미셸린느 먼디, 나, 스트레스 받았어!, 노은정 옮김(서울 : 비룡소, 2004), 서문.

25) 니콜 파브르, 상처받은 아이들 : 유년기의 상처를 말하고, 이해하고, 극복하기, 김주경 옮김(서울 : 동문선, 2003),

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도록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가정에서부터 상처는 시작된다.

아무튼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리하여 잘 키우려고 노력한다. 그렇건만! 그렇건만 우리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잘못 가르치는 실수를 곧잘 저지르고 만다. 그런가 하면 아이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는 성인들 중에는 오히려 아이들을 짓밟거나 멸시하는 이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까운 어른이나 낯선 어른이 아이들을 성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바라봄으로써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다.²⁶⁾

뜻밖에도 많은 부모와 사회 어른들은 자기들이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어떤 말과 행동이 아이를 학대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 혹독한 짓으로 아이를 학대하는 행위만 학대로 알고 있는 어른들이 많다. 그러나 아이를 감금하거나 매질하는 신체적인 학대만 학대가 아니다. 정서 학대도 학대다. 욕설이나 가볍게 던지는 말로 아이에게 모멸감을 주거나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것도 학대고, 부모의 욕심으로 지나치게 명령하고 간섭하고 통제해서 아이를 아이답게 자라지 못하게 하거나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학대다. 그뿐만이 아니다. 부모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해서 아이를 돌보지 않고 되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도 학대다. 또 사회 어른과 부모가 아이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이나, 성폭력의 위협에 아이들을 그대로 노출시켜 두고 방치하는 것도 학대다.²⁷⁾

상처들 중에는 찢리고 터지고 깨지고 찢어진 온갖 상처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미처 표현할 수 없거나, 혹은 표현할 줄 모르는 고통과 그 양상들을 전혀 눈치채지도 못한 채 옆으로 제쳐 놓는 수가 많다. 또한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모두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의 상처 속에 빠져 들어가, 아이의 어두움·두려움·고통·무력감을 함께 느끼고 있기가 쉽다.²⁸⁾ 그리고 육체적인 폭력이 아니면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옳지 않다. 말에 의한 폭력은 그와 같은 정도로, 때로는 그 이상으로 남을 해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부모에 의한 모욕적인 욕설, 창피를 주는 행위, 바보 취급하는 말 등은 아이의 마음을 해치며, 오래도록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²⁹⁾

우리는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상처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삶이 무력하게 마비되어 가는 아이들 마음 속으로 들어가 그 상처를 드러내어 치유하고 예방하고자 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기는 했지만, 과연 아이들이 이 과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개개인의 마음 속에 잠재되어 있는 정서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치유와 변화

pp.44-45.

26) 전계서, p.13.

27) 이호철, 학대받는 아이들(서울 : 보리, 2001), pp.7-8.

28) 니콜 파브르, 전계서, p.9.

29) 수잔 포워드, 흔들리는 부모들 : 부모의 역할이 다음 세대의 인생을 좌우한다, 한창환 옮김(서울 : 사피엔티아, 2000), p.109.

를 경험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의외로 아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거리낌없이 솔직하게 표현했다.

아울러 매주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 맞는 책읽기를 통해 진행자와 참여자 사이의 대화가 더 풍성해 진 것으로 생각된다. 책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고 가족과 친구, 사회를 바라보면서 상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첫 시간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 밝은 표정으로 타인의 시선을 받아주면서 발표를 할 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그들의 상처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기 시작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아이들은 상처 속에서도 생명력을 보여주기 시작”³⁰⁾ 한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소중히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들 자신의 마음 깊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자기들이 귀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³¹⁾

연구자의 수업이 끝나던 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독서치료를 통해 스스로 좋아지거나 치유된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라는 질문을 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하여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글로 그동안 자신들이 체험했던 독서치료 과정의 효과를 이야기했다.

사실 밖으로는 고민이 없는 척하며 지냈지만 고민이 많아서 잠자기 전에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잘 자지 못했는데 독서치료를 하면서 고민이 많이 줄어들었고, 잠을 편안히 잘 수 있게 되었다.³²⁾

그전엔 나도 모르게 무언가 불안하고 불편했는데 지금은 가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야기 주인공을 보며 마음의 안정이 느껴진다. 그리고 앞으로 주인공과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주인공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못하겠지만 해매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³³⁾

나는 어린이 독서치료를 하고 나서 그 동안 앓고 있던 마음의 병이 후련해지는 것 같았다. 고민이 있으면 부모님께서 털어놓으라고 하셨지만,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다. 그런데 이렇게 독서치료에서 고민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가뿐하고 후련해지는 것 같았다.³⁴⁾

이 외에 ‘어머니가 원하는 착한 어린이의 탈을 벗고 내 주장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참여자와 ‘독서치료 후 가족에게 말 걸기가 편해졌다, 부모·형제 및 친구와의 사이가 좋아졌다, 슬픈 느낌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든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씩 버리고 있다, 나 혼자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마음의 위안이 된다, 부끄러

30) 니콜 파브르, 전계서, p.11.

31) 스캇 팩, 아직도 가야 할 길, 신승철·이종만 옮김(서울 : 열음사, 2001), pp.24-25.

32) 김나리(가명), 2004. 5. 8.

33) 김보미(가명), 2004. 5. 8.

34) 이정석(가명), 2004. 5. 8.

움이 없어졌다. 화를 낼 일이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등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발표력이 향상되는 것 같고, 마음이나 느낌을 풀어쓰는 능력이 향상된 것 같다'는 표현도 있었다.³⁵⁾ 그리고 면담조사에서는 프로그램이 재미있었으며, 자기발전과 친구관계가 향상되었다는 답을 했다.

“독서치료는 특히 어린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할 때에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용”³⁶⁾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한 두 명의 아이들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지만 도서관과 진행자들의 사정으로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수업이 끝나던 마지막 날 진행자에게 편지나 카드를 주면서 친숙함을 드러내고 아쉬움을 표하더라'³⁷⁾고 했다.

응어리지고 상처 입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어야 한다. 치료하는데는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입은 상처가 속으로 굼지 않게, 겉으로 드러내어서 독을 풀어 주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한다. 아이 스스로 학대받은 일을 밖으로 내 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응어리가 풀리고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을 나는 안다.³⁸⁾

이들이 표현하고 전개시킨 주제가 충분히 겉으로 드러나자 고통의 뿌리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뒤이어 변화가 나타나거나 혹은 완전히 치료되었다.³⁹⁾

나. 성인(주부) 독서치료

2004년 상반기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12주 과정으로 운영된 '성인(주부)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첫날 17명이 출석하였으며, 마지막까지 수업에 참여한 인원은 13명이었다. 이들 참여자는 30대가 6명, 40대가 7명이었다.⁴⁰⁾ 이들의 경우 아직 어린 자녀가 있는 참여자도 있었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입학 한 후 시간적으로 다소 여유로운 오전 시간을 이용하여 자아발전과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의 평생교육강좌에 참여하고 있다.

첫 시간은 독서치료의 개념과 방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다루고, 프로그램을 안내 한 후, 참여자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독서치료는 많은 부분 자기치유서를 읽고, 그들 치유서 속에서 발견되는 개인의 심리적인 상처나 문제를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자 상호간의 공감대 형성이 아주 중요하다.⁴¹⁾ 발표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내면의 이야기를 충분

35) 어린이 독서치료 참여자들의 글, 2004. 5. 8.

36) 김민주, 어린이의 상한 마음을 돌보기 위한 독서치료(서울 : 한울, 2004), p.17.

37) W사서와의 서면 면담, 2004. 10. 20.

38) 이호철, 전계서, p.10.

39) 니콜 파브르, 전계서, p.107.

40) 울산남부도서관 평생교육팀, '평생교육프로그램 설문조사 : 성인(주부) 독서치료', 2004. 6.

41)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평생교육강좌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명찰을 만들었으며, 서로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수업 중에 패찰하도록 하고 있다.

히 밖으로 끌어내지만,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으면 서로 눈치를 보거나 쉽게 말문을 열지 않는다. 이어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질문지를 제시했다.

독서치료 강좌를 통해 마음의 병을 치유 받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살며 남편과의 불화, 아이들과의 대립과 갈등을 책을 통해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하루를 살아도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마음(정신)이 건강해야 제 삶도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⁴²⁾

독서치료 강좌를 들으면서 조금 더 나 자신과 가족 간의 유대관계, 혹은 이웃과의 유대관계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항상 문제는 나의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 같다. 나하고 달라서 이해를 못한다거나 상대방이 상식에서 벗어나면 화가 난다거나 아이가 제대로 안따라 주면 야단친다거나 하는 경우이다. 결국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는 본인인 나에게 오는 것 같다. 이것을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키우고 싶다.⁴³⁾

책읽기를 통하여 자신의 무의식중에 잠재되어 있는 상처나 아픔 등을 치료하고 내 아이와 다른 아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용하고 싶습니다.⁴⁴⁾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책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자 하고 상황에 맞는 책을 읽으므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잘 이겨내고자 해서입니다.⁴⁵⁾

이 외에 ‘내 마음의 행복과 평화를 얻고 싶다,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램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사례와 경험이 있지만 대인관계가 어려운 것 같다. 매사에 신중하지 못하고 가볍게 행동하거나 남을 험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감정이 묘했다. 현재의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느긋해질 수 있고 평온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싶다. 책이란 매체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일상 생활 속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책을 읽는 즐거움⁴⁶⁾도 누리고 싶다고 했다.⁴⁷⁾

주부들의 관심은 주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이와 남편, 시댁과 친정, 그리고 친구와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자 한다. 그리고 실제 수업에서 본격적으로 치유서 읽기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자녀들 이야기를 한다. 그 동안 자신들이 무심코 한

42) 김국화(가명), 2004. 3. 3.

43) 이미래(가명), 2004. 3. 3.

44) 김주영(가명), 2004. 3. 3.

45) 박소연(가명), 2004. 3. 3.

46) “일단 지적 항해의 첫발을 내딛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예전처럼 돌아올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억제된 즐거움일지라도, 모든 독서에는 의당 읽기의 즐거움이 자리한다.” 다니엘 페나크, 소설처럼, 이정임 옮김(서울 : 문학과학지성사, 2004), p.52.

47) 울산남부도서관, 2004년 상반기 성인(주부) 독서치료 수업자료(2004. 3. 3).

말이나 행동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련의 행위였음을 깨닫고 깜짝 놀란다.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은 과거 자신의 부모가 그들에게 했던 일임을 기억해낸다. 어릴 적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내 아이만은 절대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일들을 자신의 아이에게 그대로 재현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별 생각 없이 하는 말과 행동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되물림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성인 자신이 고통 속에 빠져 있거나 반항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문제가 깊어 가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부모가 반항심, 억눌린 분노, 내적인 파괴성을 내면에 간직한 채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⁴⁸⁾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고 되풀이함으로써 배우는데, 가장 많이 모방하고 배우는 모델은 가족 구성원 중 특히 부모이다. 부모와 동일시하거나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여 자기도 모르게 많은 것을 배우고 사소한 일에도 무의식적으로 부모와 가정 안의 행동 양상과 태도를 답습한다.⁴⁹⁾

부모는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부모의 역할에 따라 아이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에 이른다.⁵⁰⁾ 이어서 자신의 모습을 통찰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어린 시절 이야기로 관심을 옮겨갔다. 평소에는 아이들에게 잘 해 주다가 화가 나거나 이성보다 감정이 앞설 때면 아이의 조그마한 행동에도 지나치게 야단을 치는데, 아버지가 그랬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비교적 온화한 편이었지만 한 번씩 집안이 무너질 정도로 화를 내곤 해 어디에 기준을 맞추어야 할지 헷갈렸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⁵¹⁾ 이 발언에 이어 다른 참여자가 ‘아니, 오히려 우리 부모보다 더 심하게 하죠.’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⁵²⁾ 그리고 남편이 한 번씩 전업주부인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상대방이 무안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그것은 아이들 키우고 집안 살림만 했던 어머니를 아버지가 무시하던 것을 보면서 자라온 어린 시절의 기억이 반영된 것 같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48) 니콜 파브르, 전게서, p.108.

49) 이희경, 마음 속의 그림책(서울 : 미래M&B, 2002), p.194.

50) “나는 부모를 믿을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은 ‘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으로 나아간다.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지도’가 되어서 이걸 가지고 청소년기와 성년기로 들어간다. 이 지도와 많은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잔뜩 쌓인 반감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권위를 지닌 다른 사람들-경찰, 선생, 고용인-과 갈등을 갖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그의 지도를 더욱 확고하게 해줄 뿐이다.” 스캇 펙, 전게서, p.52.

51) “아이들이 자기 존중감, 자기들의 실존에 대한 안전감을 가지게 하려면, 부모들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고 변함 없는 진지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만 한다. 이것이야말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다.” 전게서, p.27.

52) “부모 같은 인간은 절대로 안 된다고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그 부모와 똑 같은 행동을 하고 마는 것이다.” 수잔 포워드, 전게서, p.147.

산골에서 태어난 한 참여자는 현재 둘째 딸인데 어릴 때 부모로부터 언니와 끝없이 비교를 당하면서 자랐다고 한다. 한 번씩 시내에 나갈 일이 있으면 언니는 예쁘게 꾸며 데리고 가고, 자신은 눈에 농약을 칠 때나 소를 파는 시장에 데리고 다녔다는 것이다. 동네 사람들에게 주로 큰 딸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는 그저 성격 좋다는 정도에서 그쳤고, 일도 엄청 많이 했다고 한다. 다행히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언니 화장할 때 자신은 공부하고, 모든 면에서 언니보다 앞서기 위해 무척 노력을 했다고 한다. 지금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루 사랑을 주려고 한다.

남녀 차별이 심한 시골에서 자랐던 한 참여자는 동생들이 있었는데도 어머니를 도와 집안의 일은 일을 도맡아 했다. 그 당시에는 부모와 동네 어른들로부터 착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마음 속으로 갈등이 심했다고 한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그동안 억눌려 왔던 게 분출되면서 사람들에게 직선적으로 말을 해 상처를 주곤 했다고 한다. 그리고 딸이라는 이유로 몇 대 독자인 오빠와 차별을 받아야 했던 참여자도 있었다. 아버지는 그다지 표를 내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통닭을 삶아 다리는 오빠에게만 주던 일이 그렇게 서러웠다고 한다. 그런데 은연중에 참여자 자신의 마음에도 오빠가 잘 되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으며, 남아선호사상을 가진 기억은 없지만 임신을 하면 아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했다. 그래서, '아 나의 유년시절과 아들이 이렇게 연관이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지금 생각해 보면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한 것 같다고 했으며, 부모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지 못한 참여자도 있었다. 상을 타 와도 무슨 상인지 물어보지도 않아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나? 라는 고민과 다른 집에 태어났을 경우를 상상하곤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빠의 죽음으로 상심해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오빠 뒤편까지 부모에게 잘하기 위하여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착한 아이로만 살기 위해 애쓰면서 힘들었던 기억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곱게 자랐지만 결혼을 통해 남편과 시댁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겪고 있는 갈등과 고민을 들려주기도 했다.

이 외에 매를 맞은 기억과 매를 맞지 않기 위해 나무 위로 도망치기도 했던 일들, 허약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가졌던 죄책감, 아이들을 소유물로만 생각했던 지난날의 모습, 아이들 앞에서 남편과 싸운 일, 결혼반대에 부딪치면서 겪었던 마음 상함, 시댁 식구와의 불화, 제사를 비롯하여 증가 집 며느리로서 감당해야 했던 일 등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마지막 시간에 최화숙의 책⁵³⁾과 비디오 자료⁵⁴⁾를 보면서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부모, 형제, 그리고 주변의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 내기도 했다. 사실 수업이 진행되는 매주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곤 했는데, 그 눈물을 통해 그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던 상처와 아픔을 같이 흘려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⁵⁵⁾

53) 최화숙,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 : 인생의 마감 시간에 우리는 무엇이 되어서 만날 것인가?(서울 : 월간조선사, 2002).

54) 인체대탐험 7, '영원한 순환'(KBS, 2002. 9. 8).

이런 과정을 통해 그동안 자신의 마음 속에 이렇게 큰 상처와 아픔이 있는 줄 미처 몰랐으며, 그것이 아이와 남편, 가족,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줄 미처 몰랐다는 말을 했다. 특히 토론 과정을 통해 개인마다 자라는 환경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으며,⁵⁶⁾ 그 병은 치료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참여자 자신의 변화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때로는 아픔과 고통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진행된 수업이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기도 하고 위로 받기도 한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 특히, 처음에는 토론식이라 마음에 부담이 많았는데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변화를 더 깊이 체험하기도 했다.⁵⁷⁾

성인(주부)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참여자이자 이 모임의 반장을 맡았던 이영순은 “독서치료는 그야말로 책을 통해 정신적 문제의 치료를 시도하는 것인데 독서가 단순히 지식습득이나 교양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책읽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문제나 마음의 상처를 완화시켜 그것들이 치유되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독서치료는 다른 치료에 비해 치료자 스스로 책을 읽고 자기 스스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치료효과가 있다.”⁵⁸⁾고 이야기한다. 수업을 마무리하던 날 연구자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이 강좌를 통해 치료받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으며,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글로 답을 해 주었다.

독서치료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이 달라졌다. 우선 육체적인 병들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치유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 다양한 책을 접하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만 생각했고 나 자신이 언제나 상처받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일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달라지자 다른 사람 역시 변화되는 것을 실감하며, 여러 가지 점에서 도움이 되었던 수업이었다.⁵⁹⁾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주의적이 아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인지 가족이나 주위의 대인관계에서 늘 웃는 얼굴을 지닐 수 있을 것 같고, 이해 못했던 주변의 인물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로 고통 받지 않고 해결해 나가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진정한 치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인 것 같다.⁶⁰⁾

55) “따뜻한 눈물은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방향성 진통제다. 치유의 눈물, 그것은 나의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다.” 사미라 벨릴, 나는 인생을 믿는다 : 고통받는 소녀에서 당당한 여성으로, 용경식 옮김(서울 : 마음산책, 2003), p.296.

56) “수강생들이 각자 살아가면서 직접 경험한 여러 가지 일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가슴속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실감한다.” 이영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울산지역 평생교육소식, 제11호(2004, 5), p.10.

57) 나사랑(가명), 2004. 6. 9.

58) 이영순, 전개글, p.10.

59) 박마리(가명), 2004. 6. 9.

매주 책을 한 권 한 권 읽어 나갈 때마다 가슴 후련함을 경험했다. 특히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나의 실체'에 대하여 하나 하나 깨달았을 땐 경이로움을 느꼈다. 37년 동안 진정으로 '나'를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고 통찰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라도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 진정으로 고맙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뵈대로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안심이 된다. 이제는 나뵈대로 편안해 진 것 같다.⁶¹⁾

주마다 달라지는 교재가 자연스럽게 내 안의 문제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형태의 문제를 확연하게 드러내어 자각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자각에 이르니 자연스럽게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여태 간과하고 있었던 문제들이 내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을 느꼈다. 내 내면으로부터 치료가 이루어진 것 같다.⁶²⁾

이러한 이야기의 끝에는 용서와 이해를 거친 '사랑'이 자리잡는다. "이제는 나의 부모를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며, 나의 자식도 사랑한다."⁶³⁾고 말한다. 연구자에 관찰에 의하면 독서치료 참여자들은 개인에 따라 형태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다들 조금씩 변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책이 주는 변화의 힘, 즉 독서치료의 효과를 실감하게 된다.⁶⁴⁾

3. 주변의 반응과 관심

처음 울산남부도서관에서 사서중심의 독서치료 연구모임을 시작하면서 외부의 반응은 거의 기대하지 않았다. 주로 남부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치료 목록을 발간하고, 독서치료 코너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그 성과들이 부산대학교 대학원의 학위논문과 독서치료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논문에 인용⁶⁵⁾되거나 독서치료와 도서관의 역할(서울 : 한울, 2004)의 저자이자 부산대학교 도서관 사서인 신주영의 초청

60) 전석미(가명), 2004. 6. 9.

61) 황은주(가명), 2004. 6. 9.

62) 손영희(가명), 2004. 6. 9.

63) 이주란(가명), 2004. 6. 9.

64)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김정근 교수는 "책 읽기를 끝냈을 때 나는 속으로부터 무엇인가 크고 단단한 덩어리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후련하고 시원하였다. 그 경험이 있고 난 후 나는 변하기 시작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 정도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한편, 그 후에도 내 속에는 여전히 지난날의 익숙한 경향이 남아 있는 면이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옛날의 걱정쟁이 나는 아니다. 가끔 과거로 회귀하려는 나 자신의 움직임이 있는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는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싱겁게 웃게 된다. 더 이상 허겁지겁 바쁘게 서두르게 되지 않는다." 김정근, "김정근의 독서치료 이야기 : 마음의 상처와 독서치료", 좋은삼선소식, 제37호(2004, 10), p.5.

65) 그 한 예로 황금숙, "독서치료 교육현황과 문헌정보학의 역할," 제41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2003, 9), pp.210-231을 들 수 있다.

강연⁶⁶⁾ 등으로 우리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외부로부터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우선 2004년 12월에 제4호까지 발간된 독서치료목록,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한 자가치유 도서목록’과 관련하여 문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대림대학의 황금숙 교수는 경기도립 성남도서관에서 주부대상의 독서치료 수업자료용으로 목록을 요청⁶⁷⁾했으며, 그 외 개인 연구용으로 5명⁶⁸⁾의 문의가 있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장수공공도서관과 정읍학생복지회관(도서관), 마한학생종합회관(도서관과 사회체육시설 복합기관), 부산의 남구도서관 외 2개 공공도서관으로부터 독서목록의 발간 과정에 대한 설명과 목록 요청을 받았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담당관실의 이선 사무관과도 통화를 했다. 이들 도서관에서는 남부도서관의 독서치료 목록을 참고하여 책을 구입하거나 독서치료 코너를 설치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상이 연구자와 직접 통화를 한 개인과 도서관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독서치료 목록을 다운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목록 자체에 관심을 두었으며,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개인 연구원 1명 정도였다.

한편, 울산지역에서는 울산중부도서관의 경우 2003년 9월 독서의 달 초청강연회 강사로 책아 우리 아이 마음을 열어 줘(서울 : 청어람미디어, 2003)의 저자인 하체를 초청하여 어린이 독서치료에 관한 강연을 개최하였으며, 울주도서관은 울산남부도서관 독서치료 연구모임 회원이었던 김미숙 사서가 2004년 4월 10일 그 도서관으로 발령 받아 가면서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2004년 여름독서교실 과정에 상황별 독서치료 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했다. 독서치료의 상황과 자료, 진행 사서는 다음과 같다.

〈표 13〉 2004. 울주도서관 여름독서교실 독서치료 상황과 자료, 2004. 7. 29~7. 31⁶⁹⁾

상 황	자 료	진 행 자
친구(왕따)	문선이, 양파의 왕따일기, 서울 : 파랑새어린이, 2002.	김 미 숙
나(자존감)	한나 요한슨, 우리 모두 짝짜 기러기에게 박수를, 문성원 옮김, 서울 : 시공 주니어, 1999.	곽 임 수
가 족(가족의소중함)	미카엘 엔테, 마법의 설탕 두 조각, 유혜자 옮김, 서울 : 한길사, 2001	강 옥 순

그리고 울산지역 공공도서관 전 사서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공공도

66) 신주영의 ‘독서치료와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발표와 초청강연은 다음과 같다. ①문화관광부·한국도서관협회, 제41 전국도서관대회, 2003. 9. 27. ②전북 군산 청소년 수련원, 전라북도 공공도서관 사서협의회 연찬회, 2003. 10. 30. ③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독서지도과정, 2004. 4. 27. ④울산광역시 공공도서관 사서협의회, 울산광역시 공공도서관 사서협의회 세미나, 2004. 6. 18. 신주영의 메일 답변, 2004. 10. 22.

67) 연구자는 ‘독서치료 연구모임 일지’ 외에 모임과 관련된 내부 진행사항과 경과를 별도로 정리했다. 그 자료를 보면 황금숙 교수로부터 2003년 10월 7일에 전화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때부터 독서치료와 관련된 문의를 받았다.

68) 이들 5명은 성신여대의 문성옥(2003. 10. 15), 부천시의 강상일(2003. 11. 11), 부산 해광고등학교의 지혜조(2003. 11. 28), 그리고 공주사범대학의 국어과 대학원 과정에 있던 2명(2004년 상반기)의 연구원이었다.

69) 울주도서관 김미숙 사서와의 서면 면담, 2004. 10. 24.

서관 사서협의회에서는 2004년 6월 18일 금요일 오후 3시 신주영을 초청하여 ‘독서치료와 도서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⁷⁰⁾

다음은 울산광역시 삼정초등학교의 요청으로 2003년 11월 12일 해당 초등학교에서 독서치료 관련 도서 300권(일반 200권, 어린이 100권)을 전시하고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한 자가치유 도서목록’ 제2호를 300부 배부하였다.⁷¹⁾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고 울산책사랑·책잔치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 ‘제1회 울산광역시 책사랑, 책잔치’⁷²⁾ 행사에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한 자가치유 도서목록’ 제2호를 울산남부도서관 예산으로 1,000부 인쇄하였으며, 이 내용은 주최측에서 발간한 자료 2,000부에도 수록되어 총 3,000부를 울산지역 시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이 행사는 2003년 10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진행되었으며, 롯데백화점 울산점 월드광장에서 열렸다.

울산지역 중·고등학교 국어교사들의 소모임 중 ‘독도랑 놀자’⁷³⁾라는 연구모임에서 울산남부도서관의 독서치료 관련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운을 떼면서, 연구자가 그들의 모임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연구자의 개인 사정으로 지속적인 참여는 어려우며, 대신 독서치료의 개념과 방법, 현황에 대하여 1회 정도 소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그렇게 그 날은 모임 날짜가 정해지면 다시 연락을 하겠다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었다. 그런데 그 뒤 전화로 회원들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연구자는 자료를 준비하여 2004년 8월 6일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 정도 8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울산남부도서관에서 독서치료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와 독서치료 수업자료와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독서요법사 수업자료, 그리고 울산남부도서관의 어린이 및 성인(주부)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독서치료의 방법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독서치료에 대한 이론에 치중하기보다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 맞는 치유서를 읽어가면서 참여자들이 직접 심리적인 문제를 완화하거나 치유의 과정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소개하고, 부산, 울산, 경남지역, 그리고 서울지역의 독서치료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이처럼 울산지역에서는 지리적 여건의 영향으로 독서치료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문의와 방문, 참여가 있었다.

울산남부도서관의 이런 활동은 울산지역에 있는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2003년 4월 1일

70) 울산광역시 공공도서관 사서협의회, ‘2004년 울산광역시 공공도서관 사서협의회 세미나 자료’, 2004. 6. 18.

71) 삼정초등학교,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정책연구학교 운영 관련 업무 지원 요청’, 2003. 11. 4. ; 울산남부도서관,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정책연구학교 운영 관련 업무 지원 건의’, 2003. 11. 8.

72) 이 행사는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고, 출판업계, 도서관, 독서클럽 등 관련기관, 단체의 교류 및 연대의식의 강화, 청소년들에게 학습견학의 장을 조성함, 도서기증과 나눔을 통한 가치지향적 운동 정착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제1회 울산 책사랑, 책잔치 추진 2차 모임 안내 및 추진위원회 구성 협조요청’, 2003. 10. 7.

73) ‘독도랑 놀자’의 의미는 독서를 좋아하고 학교에서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들의 모임이라고 했다. 이들은 3년 전부터 퇴근 후 월 2회 정도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50여권의 책을 읽었고, 책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고자 한다고 했다.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한 자가치유 도서목록’ 제1호를 발간하고 독서치료 코너를 설치하자 즉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울산남부도서관(관장 이태진)은 제39회 도서관주간(12일~18일)을 맞아 ‘독서치료 관련도서’를 선정, 2층 종합자료실에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부도서관이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한 자가치유 도서목록’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는 책은 260종 332권으로 우울증 등 마음의 상처를 이해하는 책 79종과 어린이 심리치료 등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책 181종으로 영역을 구분했다. ... 현재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을 운영하며 독서치료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김정근 교수는 “이제 기존의 깨우침과 지식을 쌓기 위한 책읽기에서 한 단계 나아가 아픈 마음과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하며 인간을 이해하는 성숙한 책읽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⁷⁴⁾

그리고 2004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겨울독서교실 과정에 ‘상황별 독서치료’ 과목을 편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담당 기자가 직접 도서관으로 찾아 와 진행자와 과 인터뷰를 했다.

이번에 진행된 독서치료에서는 토론 주제를 가족관계, 자아존중, 학교생활 등 3분야로 나눴다. 아이들은 사서들의 조언을 받으며 책을 읽은 소감이나 자신의 생각 등을 서로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갔다. 아이들은 토론을 하면서 스스로의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인식도 깊어졌다고 한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내면의 심리도 발견하게 된 것이다. ... 이날 한 학생은 남을 이해하는 마음의 책을 읽고 토론을 벌인 뒤 “왕따를 당하고 있는 같은 반 친구를 도와줘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아이들은 독서와 토론을 통해 겨울방학동안 한층 성숙해진 모습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이 이를 대변해 준다.⁷⁵⁾

아울러 “독서치료는 도서관이 이론을 현장에 적용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사서가 책을 다루는 직업에서 벗어나 연구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귀감이 된다”⁷⁶⁾고 평했다. 지금도 울산남부도서관의 독서치료에 대한 외부의 문의는 계속되고 있다.⁷⁷⁾ 그리고 이러한 반응은 울산남부도서관에 대한

74) 박익조, ‘아픈 마음 책으로 달래보자’, 경상일보, 2003. 4. 16. 이 기사 외에 조혜정, ‘독서로 마음 다스린다’, 한울일보, 2003. 4. 16. ; 정재환, ‘독서치료 서적 인기’, 울산매일, 2003. 4. 16. ; 김영옥, ‘독서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 남부도서관 260종 332권 선정’, 울산여성신문, 2003. 4. 21~4. 27 등 울산지역의 각 언론에서 남부도서관의 독서치료목록 발간과 독서치료 코너설치에 대한 내용을 기사화 했다.

75) 박석철, ‘열린교육 현장을 가다 ④ : 남부도서관 열람봉사팀, 독서로 마음의 상처 치유’, 광역일보, 2004. 1. 15.

76) 전계글.

77) 2004년 10월 21일에는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최명화 사서로부터 도서관 내에서 사서들끼리 주제발표를 하는데 이번엔 ‘독서치료 코너 설치’에 대한 사례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며, 울산남부도서관의 독서치료 코너 사진을 요청해 오기도 했다. 아울러 경남 창원도서관의 독서치료 코너 사진을 메일로 받았다는 소식도 전했다.

관심이라기보다 책을 통해 마음치료를 하는 독서치료에 대한 관심이며, 개별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참고와 검토 차원에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이해된다.

Ⅲ.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

이상과 같이 울산남부도서관에서 운영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반면,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도 여러 가지 발견되었다. 이 문제점들은 평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연구자의 관찰과 상·하반기 성인(주부) 독서치료 강좌를 마무리하는 날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도서관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정규화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울산남부도서관은 2002년 11월부터 사서 중심의 독서치료 연구모임을 결성하고, 2004년 3월부터 사서가 진행자가 되어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년 정도 연구활동과 1년 정도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사이동으로 진행자가 다른 도서관으로 발령 받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 부분에 대해 다소 긍정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울산남부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한 사서가 다른 도서관으로 인사이동을 한 적이 있는데, 연구활동에 참여한 다른 사서가 이어 받아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도서관으로 발령 받아 갈 경우 그 도서관에서 새로운 연구모임을 결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울산남부도서관에서 연 2회 발간하고 있는 독서치료 목록, 즉,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한 자가치유 도서목록'에서 이용자는 어떤 책을 우선적으로 읽어야 하는가 라는 부분이다. 이 목록은 2005년 2월 현재 제4호까지 발간되어 있으며, 제1호의 경우 일반인 도서 260종, 제2호는 일반인과 어린이 도서 521종, 제3호는 일반인과 어린이, 청소년 도서 733종, 제4호는 일반인과 어린이, 청소년 도서 889종이 소개되었다. 이 자료는 갱신을 거듭 할수록 소개되는 자료의 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독서치료 코너 설치 측면에서 일정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 적은 양의 자료를 빈약하게 비치해 놓는 것보다 풍성한 자료를 안내하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는 목록에 '상황'을 소개하고 있지만, 일반자료의 경우 이용자들의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책이 더 비중 있으며, 우선적으로 읽어야 할지 고민을 안겨 줄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모임을 하고 있는 사서들은 적어도 주요 자료에 대한 초록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이르고 있으나, 도서관 내의 역량으로는 이 작업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셋째, 독서치료 과정에서 사용되는 치유서의 경우 그 선정 방법이 다소 '임의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이 초기 단계이고, 도움을 받을 만한 목록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특정 학과에서 소개된 자료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한국도서관협회 전문분과위원회의 하나인 독서진흥위원회에서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 : 성인편(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4. 12)을 발간하였다. 이 책에는 성인 독서치료를 위한 30여 개의 상황이 설정되어 있으며, 거기에 따른 138권에 대하여 초록작업을 하였다. 따라서 이 책을 참고하면 그동안의 자의적인 선정에서 벗어나 실험을 거쳐 효과가 드러난 자료 중심으로 치유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를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울산남부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12주 과정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울산남부도서관 평생교육 강좌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동일한 강좌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부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한 번 참여한 강좌는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1, 2기 성인(주부)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자는 현재 월 2회, 금요일 오전 시간을 이용하여 도서관의 세미나실에서 연구자의 지도 아래 정규 강좌와는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후속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3기, 제4기 등 지속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수료자들이 배출될 경우 지속성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도서관에는 공식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년 정도 도서관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다음은 참여자들이 방법을 찾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 독서치료 참여자의 경우 1회 참여로 종결되어 버렸다. 이 부분은 지금도 아쉬운 부분인데 도서관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추진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약이 따르기도 했다.

다섯째,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자의 마음에 이는 감정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개설되는 프로그램은 운영 목적과 예산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용을 계획해야 한다. 이번 해에는 마음의 상처와 영향을 이해하고, 자신의 심리 상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지만, 여전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 따라서 앞으로 최훈동, 이규환, 민성길, 스캇 펙, W. 휴 미실다인 등 정신과 전문의들이 임상 경험에 기초하여 저술한 정신의학 계통의 매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들 매체는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쓰여져 있으며, 독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진단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초청강연회와 같은 형태를 통해 정신과 전문의와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질문을 하고 설명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섯째, 발달적 독서치료와 집단치료 형태에서는 참여자의 발언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하고자 하지만, 발언에 대한 '비밀 보장'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어쩌면 가장 내밀한 부분은 드러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을 대상으로 1:1 상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 부분은 도서관측면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 도서관에서 강의를 지급하기 때문에 참여 인원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4년 11월 말, 울산남부도서관

관은 최근 3년 간 주요시책사업 추진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울산교육청 종합감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강자 혹은 수료자가 적은 강좌는 문책대상이 되었다. 단지 몇 사람을 위해 강좌를 개설하고,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물론 근거를 댈 수는 있겠지만, 실적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일은 쉽지 않다.

일곱째,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중도 포기자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연구자는 도서관에서 주부들 대상의 평생교육 강좌는 무료이기 때문에 참여자의 적극성이 부족하고, 가사 사정으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사로 넘겼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독서치료는 참여자 개인의 이야기부터 가족, 주변인들의 이야기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때로는 치유서의 상황과 토론 분위기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슴 속 깊이 묻어 두었던 마음의 상처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 충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기를 포기하는 예도 있었다. 따라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첫날 참여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덜 당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하며, 수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여덟째, 독서치료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치유서를 읽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어린이들의 경우는 도서관 예산에서 5권씩 해당 자료를 구입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으나, 성인(주부)들은 자료 구입을 못했다는 참여자도 있었으며, 구입은 했지만 집안에 일이 있어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이도 있었다. 물론 토론 과정에서는 그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았지만, 독서치료의 경우 치유서를 통해 많은 부분 치료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읽기'는 필수 사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울산남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과 가까운 서점과 의논을 하여 일정 정도 할인 금액으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서는 치유서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하며, 참여자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봉사하려는 정신이 필요하다. 특히,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심리 현상을 지켜보면서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는 일은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하며,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도록 권해야 한다.

IV. 나오며

울산남부도서관에서는 독서치료와 관련하여 목록을 발간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진행자와 참여자, 주변으로부터 서서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도 고찰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좀 더 신중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연구자가 이러한 결과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마음의 고통으로

피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며,⁷⁸⁾ 그들이 치유서를 통해 스스로를 통찰하고 조금씩 긍정적이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찾아 갈 때 느꼈던 ‘다행스러움’일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독서치료란 이런 것이구나, 독서치료는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고 마음의 상처를 완화하거나 치유하는 힘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단위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생각하면서 주저하거나 불안해하고 있다면 우선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사람들을 만나보라고 권하고 싶다. 공공도서관과 사서, 그리고 치유서는 우리 사회에서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의 가슴과 만나,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도록 도움을 주고, 그들이 좀 더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용기를 준다.

독서치료 모임을 하다 보면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참여자들은 처음 모였을 때 자기소개 차례가 되면 대체로 하는 식이 있다. 우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우리 집’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럼 왜 왔는가? 그냥 배우러, 호기심에서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임을 진행하다 보면 그것이 마음 속 진실이 아님이 드러난다. 처음에는 자신도 스스로의 진실을 모르고 있을 수 있고, 알면서도 서먹한 분위기 속에서 선량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모임이 거듭되다 보면 어느 때부터 몇몇 사람이 울음을 울기 시작한다. 조금 울다 마는 수도 있고 시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울기도 한다. 코를 훌쩍거리고, 화장지를 뿔아 들기도 하고, 목이 메여 말을 못하는 사람도 생긴다.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고 오는 사람도 있다. 어떤 때는 참여자 전체가 함께 울기도 한다. 처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것은 ... 읽고, 쓰고 말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의 심연에 가라앉아 있던 구정물이 위로 떠올라 흘러나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모임이 끝나는 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얼굴이 편안해지고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한다. 이처럼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독서치료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던 내면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치유해 나가길 바란다.⁷⁹⁾

연구자는 울산남부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경우 그들의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상처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마음의 상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처가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자신을 스스로 보살피면서, 혹은 마음의 상처를 덜 받는 쪽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들의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 공공도서관과 사서의 활동이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진행자인 사서는 독서치료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학문

78) “아무튼 나는 스캇 펙의 의도되지 않은 안내를 받아 독서치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일단 발을 들여놓고 가만히 주위를 살펴보니 여러 면에서 놀랄 일이 참 많았다. 우선 충격적인 것은 우리 사회에 마음 아픈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었다. 마음에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는 어린이, 성장이 멈추어버린 청소년, 갈라서는 부부,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유치원생인 남자와 여자... 이런 식으로 증세의 분포가 광범위했다. 새롭게 눈을 뜨고 살펴보니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거의 모두가 앓고 있었으며 일상을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었다. 나 자신도 그 면에서는 결코 남에게 뒤지지 않았다.” 김정근, “김정근의 독서치료 이야기 : 독서치료에서 ‘상황’이란 무엇인가.” 출판저널, 통권 제345호(2004, 8), p.142.

79) 김정근, “김정근의 독서치료 이야기 : 상처받은 마음의 유능한 주치의, 독서,” 사람과 책(2004, 8), pp.58-59.

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며, 아울러 참여자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끝까지 함께 한다는 책임감⁸⁰⁾이 필요하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80) “치료자가 환자의 문제를 기꺼이 떠맡겠다는 책임감이 충분하지 않다면,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치료자의 책임감이 충분하면 그 때는-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환자도 그 영향을 받아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반드시 온다. ... 상담자가 기꺼이 고통을 받아들여 함께 겪어 나가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치료의 핵심이며, 환자가 그것을 느낄 때에 치료효과는 배가된다. 치료자 자신을 기꺼이 확대시키고 환자들과 함께 괴로움을 겪으며 그들을 위해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면 치료자 자신도 성장하고 변화하게 된다.” 스킷 펙, 전계서, pp.162-164.